

기계적으로 문학 뜯기 (현대시)

9월 모의평가는 단순한 점수 확인용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학습이 수능에서 통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무대이며, 동시에 남은 두 달간의 학습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그렇다면 문학 영역에서 9모 직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1. '감'이 아니라 '근거'로 읽기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문학 문제를 풀 때 '분위기상 이런 것 같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그런 감각적 풀이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반드시 작품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깔끔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보는게 아닙니다. 고1, 2 혹은 올 초에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수완 실전 1회에 제시된 작품을 통해 같이 연습해보고 갑시다.

어렵지 않은 시지만 그냥 한 번 봐보고 싶었어요.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올리나
㉠ 날으는 새
뫼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 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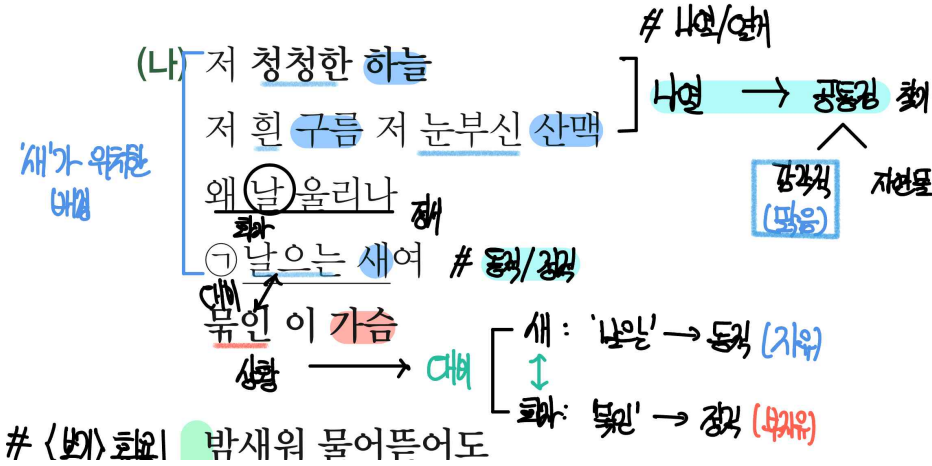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 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올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뫼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시작부터 각종 대상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열/열거가 나왔다면, 그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통해 범주를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으는'에서 동적 이미지를, '무인'에서 정적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는 서로 대비되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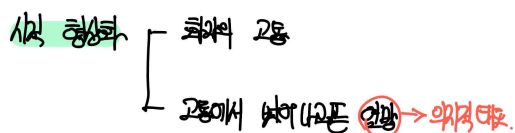
2. 작품에 대한 '거리 두기'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학을 완벽하게 감상하듯 빠져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험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작품 감상의 주체가 아니라 판단의 주체로 서는 태도입니다. 즉, 작품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의도는 <보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겠죠.

1 보기 1

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준다. (나)의 화자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과 대비되는 존재를 들어 절망적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겪는 고통과/이에서 벗어나고픈 열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보기>에서 화자의 상황과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보기> 화옹! 밤새워 물어뜯어도 ^{↳ 화: 뉘인' → 장막 (부귀위)}
 → 화자의 고통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어
 형상화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씩은 피

그렇다면 난해해보이는 이 부분도 <보기>를 붙여서 바로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 # 동적/정적, 낮아
 낮이면 낮 그여 한 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어

대 [새: '날' → 동적 (지위) / 상
 ↑↓ 지향
 화: '뉘인' → 장막 (부귀위) / 하 (∵ 땅요갈 ~ 우러러)

'너를 우러러'에서 화자가 땅에서 하늘을 나는 새를 우러러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기>의 '벗어나고픈 열망을 형상화'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자는 '땅'이라는 공간 배경에 존재하고 새는 '하늘'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존재하는 것이니 위/아래로 대비되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이미 배운 요소들이지 않나요?
 동적/정적, 상승/하강(여기서는 상/하), 지향(우러러봄)

이미 '문학 개념어'라는 명목하에 배웠고 그것을 기준으로 시를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선지 판단의 습관화

문학 문제는 지문 자체보다 선지에서 시간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선지를 근거로 지문을 읽는 습관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풀이 기술을 넘어, 시험장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태도입니다.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 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느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느새
왜 날 올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이 묶인 이 가슴

변화
새: '날' → '떠가' (↑지향)
화: '우래' → '떨' - ㉠

- 김지하, 「새」

33

▶ 2505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 ㉡ 화자가 스스로의 처지를 인식하도록 한다.
- ㉢ 화자가 우러르다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게 한다.
- ㉣ 화자가 죽어서라도 되고 싶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 ㉤ 화자의 시선에서 멀어지며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

여기 이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

새가 보이다가 점점 화자의 시야를 벗어나며 떠나는 장면임을 이미지화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게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선지를 판별하며 그 선지 판정의 기준을 통해 작품 독해의 실마리를 얻어낼 수 있어요.

예시에서는 33번의 선지 판단을 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시간 의식과 리듬감

문학에서 시간을 과도하게 쓰면 독서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따라서 전체 20분~30분 이내라는 리듬을 몸에 익히는 훈련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시간 의식은 태도이자 실력입니다. 각 갈래별로 어떻게 전략을 짜서 시간을 줄일 것인지를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번 글은 시간 단축 보다도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비효율을 줄이는 쪽의 글이었습니다.

새가 위대한 태도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① 날은 새여
뭍인 이 가슴
상황 → 대: '나' → 동 (가위)
 ↓
 화: '뭍' → 장 (가위)

<외> 화자
→ 화자의 표정
행복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어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날을 우러러 → # 동/장, 동어
낮이면 낮 그어 한 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다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어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 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 # 변화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뭍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① 아이 뭍인 이 가슴

새: '나' → 동 (가위)
 ↑
 화: '뭍' → 장 (가위)

김지하, '새'

② 및 ④의 반식적 근거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화자의 시선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기

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준다. (나)의 화자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과 대비되는 존재를 들어 절망적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겪는 고통과/이에서 벗어나고픈 열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시선 상황 → 화자의 고통
 ↓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열망 → 화자의 태도

33

▶ 25051-0093

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가 자신의 비극을 회상하게 한다.
② 화자가 스스로의 처지를 인식하도록 한다.
③ 화자가 우러르다가 자신의 상황을 비판하게 한다.
④ 화자가 죽어서라도 되고 싶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⑤ 화자의 시선에서 멀어지며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



5. 마무리

이런식으로 가볍게 연계 작품들을 통해 각 갈래별로 시간을 단축할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고전과 현대로 나누었을 때, 시간 단축을 집중해야 하는 파트는 고전파트입니다.

고전시가와 고전 소설은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고전시가의 경우 자연친화, 사랑/한/애환 이 두 가지만 잡아도 80퍼 이상 풀립니다.

시간이 부족한 노베이스 친구들은 저 두 가지 주제라도 잘 파악하고 가길 바랍니다.

다음 게시글은 고전시가의 패턴을 가볍게 털고 가겠습니다.